

## 우리나라林業의 未來展望

權 五 福 / 江原大教授

현재 우리나라林業은 3가지 競爭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競爭은 他產物과의 競爭이고 두번째는 代替材와의 競爭이며 세번째는 外材와의 競爭이다.

他產業과의 競爭이란 林業의 生産성이 낮아서 충분한 所得을 올릴수 없을때 勞動力 이라든가 土地資源이 他產業으로 流出 내지는 轉換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競爭이다. 70年代 이후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林業分野에서 生産資源이 他產業으로 많이 流出되었다.

한편 外材와의 競爭에 있어서도 木材需要의 85% 이상을 外材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競爭이 대단히 치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3가지 競爭때문에 우리나라林業이 不況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林業이 그러한 不況속에서 헤어나 하나의 產業으로서의 地位를 回復하려면 市場原理를 도입하여 生産성이 높은 林業을 實現시키고 林業에서 충분히 所得을 올릴수 있도록 企業의 經營을 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現 狀況에서 企業의 經營의 指向은 經濟의 競爭原理에 따라 필연적으로 林產物의 單一化를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天然林型林業에서 人工林型林業으로 轉換시켜야 함으로 거기에 自然과 功이 뒤따르게 된다.

日本의 林業은 林業이 아니라 農業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사실이라든가 自然과 功의 원흉은 林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林業이 林產物의 單一化를 指向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森林適正管理推進對策事業을 전개하기 위하여 都市住民을 위시하여 全國民들로부터 森林基金을 모금하여 그것을 山村의 經濟振興에 그리고 森林의 適正管理에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가 또는 下流地域의 住民들로부터 水源基金을 모금하여 그것을 上流地域의 水源林造成에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은 現 여건하에서는 企業의 經營으로도 林業의 危機를 극복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林業은 영원히 現 상태의 危機에서 헤어날수 없는 產業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與件變化에 따라 또는 與件變化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林業은 經濟的效率을 追求하는 방법으로 危機에서 헤어날수 있는 產業이라고 보는 것이다.

林業内外의 與件變化를 살펴보면 우선 國內材인 赤松原木의 都賣物價指數는 78년 이후 계속해서 變動이 거의 없다. 物價指數에 變動이 없다는 것은 實質적으로는 材價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한편 農山村의 勞動力變化는 農家數가 65년에 總 家口의 51.7%에서 85년에는 20.1%로 감소했고 農家人口는 65년에 總 人口의

55.1%에서 88년에는 17.3%로 감소하는 등 林價에 있어서나 勞動力이 林業에 대단히 不利하게 變化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農村에서는 勞動人口의 老令化가 進展되어 林業經營을 더욱 不利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들이 林地의 所有移動을 촉진시키고 있다. 材價의 하락으로 생산의욕이 없어져 地代를 받고 林地를 임대하기를 희망하는 山主가 나타나는가 하면 管理能力이 없어 林地를 매각처분하기를 희망하는 山主도 나타나 林地의 所有移動이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與件變化는 個別農家の 立場에서 대단히 애석한 일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때 經營規模의 擴大가 가능하게 되어 林業이 강해질수 있는 機會가 생겼다고 볼수 있다. 政府로서는 國有林確保의 좋은 機會이며 뜻 있는 篤林家は 林地를 賃借내지는 購入하여 規模를 擴大하고 經營을 合理化시킬수 있는 좋은 機會이다. 이러한 좋은 機會에 林地가 經營規模를 擴大시키는 方向으로 移動되지 않고 다른 方向으로 移動한다면 林業은 더욱 더 약해질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政府는 林地購入資金등으로 뜻 있는 篤林家の 規模擴大를 助長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世界森林의 變化가 우리나라 林業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것은 미국정부가 1980년에 작성한 2000년의 地球라는 보고서에서 대략적으로 짐작할수 있다.

그 報告書는 2000년에는 世界人口가 20억이 增加하고 그 增加人口의 90%가 開發途上國에서 나타나 熱帶林의 40%가 사라지고 世界的으로 山林不足現象이 나타난다고 예고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00년에는 材價가 폭등하여 開發途上國에서는 薪炭材조차도 구입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예고가 사실과 맞는 것이라면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國産材時代가 돌아올 것이 확실하고 林業은 他産業과의 競爭에서 유리한 位置에 서게될 것이다.

變化는 農林業分野의 人材에 있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經營能力이 있고 販賣能力이 있는 새로운 人材들이 農林業分野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農山村의 土地는 所有移動이 용이한 상황에 놓여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農山村에 접근하기 쉬우며 都市生活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대교체도 있다. 이리하여 10년, 20년후에는 農山村의 人材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教育水準이 높은 人材로 교체가 진행될때 林業은 本格的으로 성장해 갈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林業技術의 變化다. 앞으로 農林業에서는 生物學的 技術變化가 가속화되어 生産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生物學은 工學에비하면 아직 미개척분야라고 볼수 있고 따라서 현재 세계적으로 生物工學이 脚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林業内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變化를 근거로 내다볼때 林業은 生産성이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특히 많은 篤林家들이 의욕적으로 經營規模를 擴大해 나갈때 우리나라 林業은 모든 競爭이 해결되는 밝은 未來를 展望할수 있다고 본다.

